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6월 20일(금) 14:20 ㅣ 보도 일시 : 2025년 6월 20일(금) 14:20**

**‘더헤븐 마스터즈’ 1R 오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더헤븐 마스터즈 |
| 2 | 기 간 | 2025년 6월 20일(금) ~ 6월 22일(일) |
| 3 | 장 소 | 더헤븐 [West(OUT) / South(IN) 코스]  |
| 4 | 주 최 | 더헤븐리조트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31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배소현, 이동은, 박보겸, 김민주, 김민선7, 홍정민, 박현경, 정윤지, 유현조 박지영, 지한솔, 서어진, 김시현, 서지은, 송은아, 박희영, 박서진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김나영 1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 \*14시 20분 기준 단독 선두**

[상세 프로필]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14>

**오늘 버디 8개, 보기 2개로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는데, 경기 소감은?**날씨가 좋지 않아서 똑바로 치는 데만 집중했다. 핀에 바로 보내기보다는 그린 가운데를 공략했는데, 퍼트가 잘되면서 버디가 많이 나왔다. 중장거리 퍼트가 특히 잘됐다.

**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,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아졌다고 느끼는지?**오늘도 티샷이 아주 잘 된 편은 아니었지만, 샷보다는 플레이에 집중하려고 했던 점이 좋게 작용했다. 퍼트에 자신감도 붙었다.

**장타자지만 드라이버 정확도는 아쉬운 편이다.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었는데,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스코어를 기록한 비결은 무엇인지?**전지훈련을 뉴질랜드에서 했는데,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연습하다 보니 티샷 정확도보다 코스를 어떻게 읽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. 오늘 그런 부분이 경기력에 잘 연결됐다고 생각한다.

**이제 이틀 남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할 생각인지?**

오늘에 안주하지 않고,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내겠다.

**◈ 박지영 1라운드 중간합계 4언더파 68타 \*14시 20분 기준 공동 2위**

[상세 프로필]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362>

**오늘 버디 6개, 보기 2개로 마무리했는데,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?**

솔직히 이 코스에서 잘 쳤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초반에 너무 조심스럽게 플레이했는데, 그게 오히려 독이었다. 후반에 나를 믿고 과감하게 하자 했는데 잘 맞아떨어졌다. 이전 대회에서 계속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는데, 오늘은 그런 걸 조금은 깨뜨려서 의미 있는 하루다.

**기술적으로 특별히 잘된 부분이 있었는지?**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멘탈적으로 훨씬 안정됐다.

**이전 대회들과 비교해 마인드 컨트롤을 다르게 가져간 부분이 있었는지?**그동안 골프를 너무 수학 공식처럼 치려고 했던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. '이때는 이렇게 해야 해' 같은 정형화된 방식이었는데, 그걸 바꾸고 싶어도 잘되지 않았다. 오늘은 11번 홀에서 티샷 미스를 한 이후에 그냥 느낌대로 해보자고 마음먹었고, 오히려 그때부터 스윙, 템포도 안정되면서 플레이가 풀렸다.

**오늘처럼 바람이 강할 때 특별히 바꾸는 부분이 있는지?**바람을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된다. 바람을 태워서, 얼마나 부는지를 느끼고 그에 맞춰서 하고 있다.

**좋은 성적으로 라운드를 마쳤다. 남은 라운드는 어떻게 준비할 생각인지?**내일 날씨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성적을 떠나서 ‘플레이어’로서 진짜 플레이를 하고 싶다. 원래 ‘플레이’라는 단어 자체가 놀다, 즐기다의 의미인데, 골프를 즐기지 못했다. 내가 즐길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가겠다.